

광주 일반고 수능 2년연속 최우수 대등고 비결은

교사들 학생 약점찾아 보완 쉬는 시간에도 열정적 지도

광주지역 일반고 중 대학수학능력시험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광주 대등고의 학습 비결은 뭘까?

국영·수·외·수학을 먼저 스스로 약점을 찾아 보완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프로그램 '교과클리닉'과 돌출반 실행을 꼽았다. 교과클리닉은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적 학습을 내실화하기 위한 대등고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이다.

국어·영어·수학을 중심으로 1~3학년 학생 스스로 취약한 1개 과목을 신청하면 교사가 야간 자율학습과 중·석식 시간을 이용해 지도한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눈높이 학습지도로 실력을 키워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과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하위권 학생들에게는 '돌출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학년은 수학·영어를, 2학년은 영어 과목을 1주일에 2시간씩 한 학기 총 30시간 집중 학습을 통해 기초학력을 튼튼히 다진다.

국 교장은 "대등고의 실력은 교사들의 열정에서 출발한다"고 설명했다.

시험뒤 자체분석 대안제시

교과클리닉 통해 맞춤지도

공부 흥미 느껴 성적 '쑥쑥'

명했다.

국·영·수 모두 수준별 눈높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자신의 학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매월 평가를 시행하고, 모의고사와 교내 평가 후 자체 협의회를 통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중·석식 시간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목표의식을 갖도록 진로교육을 강화한 것도 성공 요인으로 들었다.

대등고는 매년 '진로·직업 탐색의 날'을 마련해 전문직업인 30여 명을 초청, 직업별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또 매년 3~4차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분야별 전문가

를 초청해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고 있다.

다양한 학술·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은 협력 학습 모델로 친구들과 상호 작용하고 있다. 국어 NIE, 논술반, 수학 퍼즐반, 영어 DNN, 화학 이소사이언스, 국사 한국사 동아리 등 35개의 학생동아리에서 604명이 어우러져 상호 토론하며 취약점을 보완한다.

1학년 정태준(16) 군은 "선생님들의 수업에 대한 열정과 생활지도가 학생 스스로 다르게 한다"며 "특히 맞춤형 수업 시스템은 개개인의 약점을 보완해 공부의 재미를 느끼게 한다"고 자랑했다.

한편, 광주 대등고는 2012학년도에 이어 2013학년도 수능에서도 광주지역 일반고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언어·수리·외국어 영역 1·2등급 비율은 27.3%나 됐다. 10명 중 3명가량은 수능에서 최상위 점수를 받았다는 의미다. 지난해 14.6%에서 올해 27.3%로 끌어올려 특목고·자사고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평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학교 체육수업 늘린다

고3도 부활...모든 초교에 체육전담교사 배치

내년부터 특목고와 자사고의 체육 수업시간이 현재의 배로 늘어나고 고3 때까지 매학기 편성된다.

2017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교사가 배치되고 여학생 체육 활동이 강화된다.

지역스포츠클럽 활동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고교 운동부 선수들은 기초학력을 키우기 위해 별도 지원을 받는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2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체육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학교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고교에서 체육필수 이수단위를 10단위(1단위는 1학기에 주당 1시간 운영) 이상으로 하고 6개 학기에 고루 편성하도록 했다. 현재 체육필수 이수단위는 일

반고는 10단위, 특목고와 자사고는 5단위다. 학교현장에서 일반고는 10.5단위, 특목고는 5.4단위, 특성화고는 7.1단위, 자사고는 8.9단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일반고는 체육 수업시간이 큰 변화가 없지만 특목고는 현재의 2배로 늘어난다. 초등학교 체육수업을 내실화하기 위해 2017년까지 모든 초교에 체육전담교사를 1명 이상 배치, 3학년 이상 체육시간을 체육전담교사가 담당하도록 했다.

중학교 체육수업 시간을 늘리기 위해 현재 중3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2시간 중 1시간을 체육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지역 공공스포츠클럽 활동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으로 인정하고 스포츠클럽전담교사가 클럽활동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광주시·전남도 교육청 891명 인사

광주시·전남도 교육청 지방공무원 891명에 대한 정기인사가 24일 단행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장문수 서부교육청 평생사회협력과장을 정책기획관 정책홍보담당으로 전보발령하는 등 사무관 20명이 자리를 옮겼다.

6급 이하는 34명이 승진하고 113명 전보, 17명 신규전환 됐다. 새로 일반직으로 전환된 17명에 대해서는 전원을 각급 학교로 발령했다.

전남도교육청도 4급 승진 3명 등 568명을 인사 발령했다.

최수성 교원인용담당사무관이 전라남도의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이양근 응도담당사무관이 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으로, 박철근 총무담당사무관이 전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 기

획운영부장으로 각각 4급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김윤경 재무과장은 장성공공도서관장으로, 한동호 교육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은 재무과장으로, 김기정 시설과장은 교육시설관리단장으로, 김관수 교육시설관리단장은 시설과장으로 전보됐다.

5급 사무관은 김승룡 홍보담당기 총무담당으로 옮기는 등 모두 21명이 전보되고, 5명이 승진했다. 6급 이하는 일반직 승진 27명·전보 115명 등 273명이, 기능직은 295명이 인사 발령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기능직 공무원 사기 진작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을 확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법, '형벌 대신 치료'...약물치료법원 검토

대법원이 이른바 '주폭범죄'나 정신병 등에 의한 '문지마 범죄'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약물치료법원 설치를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기업도산·개인파산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파산법원과 노동사건 처리의 신속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동법원 설치도 논의한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주

요 사법개혁 안건을 최근 확정하고 이른바 내달 중에 제2기 사법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사법정책자문위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대법원장 자문기구다. /연합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19분 해질 19시 51분 달돋이 21시 17분 달질 07시 11분

장마전선 영향 흐리고 밤에 비오는 곳 있겠다.

지역	기온	강수량
광주	흐림 20/26°C	
목포	흐림 20/24°C	
여수	흐리고 비 20/23°C	
나주	흐림 19/27°C	
완도	흐리고 비 20/24°C	
구례	흐리고 비 20/27°C	
강진	흐림 19/24°C	
해남	흐림 19/25°C	
장흥	흐림 19/25°C	
순천	흐림 19/25°C	
영광	흐림 19/25°C	
진도	흐림 19/24°C	
전주	흐림 20/27°C	
군산	흐림 20/27°C	
남원	흐림 20/26°C	
옥산도	흐림 19/23°C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뇌졸중지수

지역	지수	위험	높음	낮음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풍 0.5m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풍 0.5m	0.5~1.0m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6(수)	27(목)	28(금)	29(토)	30(일)	7/1(월)
날씨	☀	☀	☀	☀	☀	☁
최저/최고	20/30	21/31	21/30	21/31	21/29	21/26



세계 대학생들 답양서 한과체험

세계 우수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전남대 제5회 국제여름학교가 24일 개강했다. 오는 7월18일까지 4주간 진행되는 이번 여름학교에 참가한 학생(12개국 92명)들이 답양 한과체험장을 방문한 뒤, 선물로 받은 한과를 든 채 기념촬영을 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영호남대학생 100명 독도 땅 밟는다

한국전쟁 반발 63주년 맞아 영호남 대학생 100명이 한국전쟁 반발 63주년을 맞아 25일 독도 땅을 밟는다. 전남대는 경북대·부산대 학생들과 함께 25일 국토 최동단인 독도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경북대 포항수련원에서 '3개 대학 연계 나라사랑 독도사랑 국토탐방단 발대식'을 갖고 25일 독도에 들어간다. 이번 독도탐방은 한국전쟁 발발 63주년과 호국영령의 달을 맞

아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과 함께 독도 수호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를 만들어주고자 기획됐다. 전남대 이상권 학생처장은 "한국전쟁 당시 우리 국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민족의 발자취를 되새겨보고, 우리는 왜 독도를 지켜내야 하는지 학생들 스스로 깨닫고 역사 바로잡기에 앞장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자 전남대 제안으로 기획됐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장미철 감전사고 주의보

소방방재청은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리면 높은 습도와 침수 등으로 감전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24일 '감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07~2011년 전기재해 통계분석 결과, 그 기간에 감전사고로 연평균 58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6~8월에 전체의 37.2%인 218명(사망 26명, 부상 192명)이 집중됐다. 감전사고의 원인으로는 전기·보수공사가 33.3%로 가장 많았다. 발생 장소는 공장·작업장이 30.1%에 달했다. 감전사고가 우려되면 소방서(☎119)와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로 연락하면 된다. /연합뉴스

http://safe.korea.kr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1분 남았습니다. 30초, 20초, 10초...

수 많은 땀과 열정이 담긴 저작권, 한 순간 불법다운로드 하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창조재산이 되고 잘못 사용하면 범법자가 됩니다.

올바른 저작권 사용! 창조경제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